고장난걸까…멈춰선 광주 폴리 '틈새호텔'

설치미술가 서도호씨 "도심 체험" 2년전 제작

예약도 안돼…광주비엔날레 "운영계획 마련중"

고장난걸까. 갈 곳을 못 찾은 걸까.

광주비엔날레 때 만들어진 움직이는 호텔, '틈새호텔〈사진〉'이 멈췄다. 광주를 찾은 방문객들을 태우고 구석구석을 돌아야 할 틈새호텔이 2년 가까이 제대로 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제 9회 비엔날레(9월7일~11월11일) 때 선 보인 뒤 2013년부터 다른 집과 집, 명소와 명소 사이 좁은 틈새에 들어가 머무르는 숙박 체험을 본격 진행하겠다는 애초 계획은 2년째 제 자리다.

틈새호텔은 설치미술가 서도호(52)씨가 '2012 폴리(Folly) 프로젝트'의 하나로 만들어 선보인 작품으로, 이동식 신개념 호텔이다. 기아자동차의 봉고 III(1.2t) 트럭 위에 얹혀져 집과 집, 명소와 명소 사이 좁은 틈새에 들어가 흡수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개되기 전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10명의 생존작가'로 꼽히는가 하면, 삼성미술관 리움이 개관 이래 국내 생존 작가로는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어준 스타 작가 서도호씨의 작품이라는 점 때문에 국내외에 화제가 됐다.

고작 9㎡(2.7평형)의 공간에 호텔 수준의 원목마루를 갖추고 침대·샤워시설·화장실, 냉장고·에어컨, 개인금고에 키오스크(KIOSK·고객 편의를 위해 설치된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 기능이 들어있는 TV, 전화기, 노트 패드와 무선인터넷, 미니바에 무료 생수까지 집어넣은 세심함도 매력적인 요소로 희망 신청자들이 폭주했다.

하지만 2년 전 비엔날레 기간 때 29명이 체험 형태로 숙박한 이후 '리모델링'을 내세워 운영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도심 건축물 '폴리 II'준공에 맞춰 9명이 추가로 숙박 체험을 한 이후 여태껏 멈춰섰다. 기껏 만들어놓은 인터넷 홈페이지(www.inbetweenhotel.com) 내 예약 기능도 멈췄고 이렇다할 '운영 중단' 공지도 없는 형편이다. " '리모델링' 과 '혹한기' 기간에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재단측 방침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미뤄져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판에 박힌 관광 코스가 아닌, 시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며 숙박하면서 '광주를 온전히 느끼도록 하자'는 애초 취지도 그만큼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비엔날레재단이 직접 운영을 맡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담당할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것도 한 요인"이라며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중으로 오는 4월부터 봄·가을에 걸쳐 본격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초여름' 광주·전남

3월 하순 평균기온 최고

봄꽃 개화 시기도 빨라져

광주·전남지역 '3월 하순' 평균 기온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 7개 지점 기온의 평균 값인 평균기온이 지난 21일부터 말일까지 고공행진을 보여 최근 10여일 동안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3월 하순 평균기온은 11.8도로 평년 8.6도 보다 무려 3.2도나 높았다. 또한 3월 하순 평균기온은 물론 3월 한 달 평균기온도 8.3도로 지난 2002년(8.6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아 올해 3월은 그 어느 해보다 빠르게 여름 날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광주·전남 이상 고온 현상은 4일부터 평년 수준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때 이른 초여름 날씨는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이란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상 고온으로 인해 벚꽃과 개나리 등 봄꽃의 개화시기도 평년보다 2~7일, 지난해보다 1~4일 빨라졌다. /박정렬기자 ha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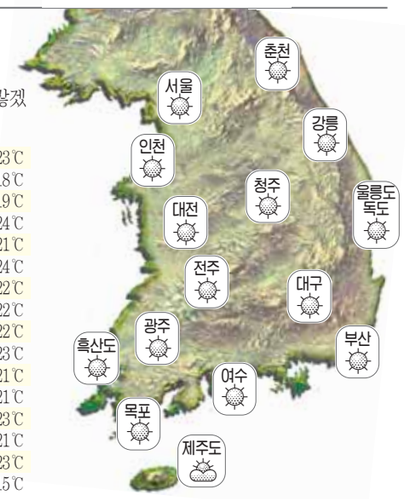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19분 해짐 18시 54분 | 달뜸 07시 43분 달짐 21시 35분

미세먼지 '보통'

낮 동안 다소 더운 곳이 많겠다.

광 주	맑음	9/23℃
목 포	맑음	8/18℃
여 수	맑음	11/19℃
나 주	맑음	6/24℃
완 도	맑음	8/21℃
구 례	맑음	6/24℃
강 진	맑음	6/22℃
해 남	맑음	4/22℃
장 흥	맑음	4/22℃
순 천	맑음	10/23℃
영 광	맑음	7/21℃
진 도	맑음	5/21℃
전 주	맑음	8/23℃
군 산	맑음	8/21℃
남 원	맑음	6/23℃
흑산도	맑음	8/1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북동~동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식중독지수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m
먼바다	동~남동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밀물	썰물
목포	03:51 16:00	08:57 21:09
여수	10:43 23:07	04:27 16:4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4(금)	5(토)	6(일)	7(월)	8(화)	9(수)
날 씨						
최저/최고	5/13	4/14	6/18	7/19	9/18	9/19

"손씻기를 잘해야 건강해요" 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보건소에서 열린 올바른 손 씻기 체험 교육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강사로부터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받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목포·여수·순천지역 고교배정

중학 내신·선발고사 성적 반영

전남교육청, 내년도 입학전형안

목포·여수·순천지역 고교 배정에 중학교 내신성적과 선발고사 성적이 반영된다.

전남도교육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4개 고교에서 실시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전남외국어고, 전남과학고, 광양제철고 3교를 제외하고 폐지했다.

이는 교육부의 자율형공립고 육성 방침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정책으로 전환돼 자율형공립고의 후기 우선 선발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평준화지역(목포·여수·순천) 고교 배정 방법도 바꿨다.

중학교 내신 성적과 선발고사 성적으로 남·여 구분 없이 학군별 입학정원만큼 선발하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등급별로 배정한다. '석차등급 비율(9등급)을 반영한 희망 배정'으로 지난해 배정 방법 연구와 공청회 설문조사 결과(찬성 73.2%)를 반영해 개선했다.

또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고입 전형 일정이 10일 정도 늦춰지며 성취평가제 도입으로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방법도 변경된다.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 현 중3 학생들부터 성취도에 따른 평점(A-5점, B-4점, C-3점, D-2점, E-1점)을 적용해 내신 성적을 산출하며 동점자 처리를 위해 원점수를 활용한다.

이 밖에 국가유공자 자녀와 고입특례대상자는 모집인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각각 선발하도록 했다.

민영방 전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은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비선호 학교 해소를 위해 평준화 지역 고교배정에 성적지수를 반영했다"며 "변경된 부분이 많은 만큼 특별히 주의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자살 시도자 자살률, 일반인의 25배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국 자살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의 주된 원인으로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증상과 더불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사망자 통계와 자살시도자에 대한 면접 조사, 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 대국민 자살인식조사 등을 토대로 한 대규모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 발효된 자살예방법에 근거해 실시한 것으로, 정부 주도로 실시한 전국 규모의 첫 자살실태조사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7~2011년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8848명 가운데 2012년 말 기준으로 실제 자살한 사람은 236명으로, 연간 10만명당 약 700명의 자살률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 인구의 자살사망률인 10만명 당 28.1명에 비해 무려 2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한 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자살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가운데 남성 자살 사망자의 절반이 자 살 시도 7개월 이내에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후 자살 시도자의 자살률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연합뉴스

학교 주변 유해업소

광주경찰, 100곳 적발

광주지방경찰청은 신학기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벌여 100곳을 적발하고 117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노래연습장 23곳, 사행성 게임장 22곳, 당구장 20곳, 일반음식점 8곳, 피시방 6곳, 신변종업소 5곳 등이다.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학교 반경 50m 이내에서는 유해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

경찰은 10월 말까지 교육청, 지자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